

開運寺 阿彌陀佛 腹藏本 『華嚴經』 研究

A Study on the *Avatamska Sutras*(華嚴經) Found from the Inside of Amitabha statue(阿彌陀佛) of Gaeunsa(開運寺)

송 일 기 (Song, Il-Gie)*

◁ 목 차 ▷

- | | |
|-----------------|-----------------|
| 1. 緒 論 | 3.2 板經類 |
| 2. 開運寺 腹藏遺物の 現況 | 4. 開運寺本 華嚴經의 特徵 |
| 2.1 典籍類 | 4.1 寫經類 |
| 2.2 文書類 | 4.2 板經類 |
| 3. 開運寺本 華嚴經의 現狀 | 5. 結 論 |
| 3.1 寫經類 | <참고문헌> |

< 초 목 >

이 연구는 서울 소재 개운사 아미타불좌상에서 수습된 복장전적 중 화엄경만을 대상으로 그 현상 및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여 대략적인 간사(刊寫)의 시기를 밝히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각 장의 행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자수(字數)는 모두 17자본으로 국내전본과 일치되고 있으나, 행수(行數)의 경우 사경과 판경 모두 대부분 26행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장정의 형태가 권자본인 불경의 경우에 있어서 권수제가 1행이면서 동시에 각 장이 26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字體)에 사경체자가 보인다면, 대체로 9-10세기 사이에 刊寫된 자료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개운사 복장본 화엄경 20점 중에는 적어도 4점 이상이 신라하대에 간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보급 전적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나머지 13점도 고려 초기 12세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要語: 개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신라사경, 신라판경, 사경체자, 권수제, 행자수, 판수제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접수일: 2010년 11월 29일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20일 심사완료일: 2010년 12월 27일

<ABSTRACT>

Through analyzing physical features, this study attempts to ascertain the approximate date of making *the Avatamska Sutras*(華嚴經) found from the inside of Amitabha statue(阿彌陀佛) of Gaeunsa(開運寺) in Seoul.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all the Sutras of Gaeunsa have 17 characters per line, the same as other existing Sutras, but most of them have 26 lines per sheet. Since the Sutra was produced in scroll form with 26 lines per sheet and letters in the manuscript style, and its heading appeared in only one line, it could be estimated to be made in the 9th or 10th century. With this criteria, at least 4 volumes of *the Avatamska Sutras* are assumed to be made in the late Silla Dynasty, and considered as valuable as the National Treasures. The other 13 volumes are presumed to be made in the 12th century in the Goryo Dynasty.

Key words: Gaeunsa, Wooden Amitabha Buddha statue, *the Avatamska Sutra*, Silla manuscripts

1. 緒論

개운사의 아미타불상에서 복장유물이 수습된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이다. 그 사이 이미 이에 관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었으나,¹⁾ 불상에 비해 전적문화재에 대해서는 간략한 목록으로 제시하였을 뿐 크게 주목되지 못했다. 그러나 필자는 일찍이 그 간략목록을 통해서나마 해당 전적들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료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것은 첫째, 불상의 중수가 13세기 후반에 있었다는 발원문의 내용으로 보아, 최초의 조성은 그 보다는 한 세기 정도 앞선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불복에 시납한 복장품 또한 불상 조성 이전의 유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는 복장전적의 형태가 모두 권자본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권자본은 장식사경을 제외한 목판본 불경의 경우 대부분 13세기 전반 이전시기에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복장품 중 사경류가 모두 ‘白紙墨書寫經’이라는 점이다. 현존하는 고려사경 중에 권자본 백지묵서사경은 그 예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에서 신라사경일 개연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는 불상에서 수습된 사경과 판경이 모두 22점인데, 그 중 화엄경이 20점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화엄경은 신라가 화엄사상을 수용하여 통일을 이룬 이후 전국에 화엄십찰을 설치하고 불교 종파와 교학의 중심 이념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근본경전으로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필자는 오래전부터 개운사 복장전적의 중요성에 대해 감지하고 있었으나, 실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개운사측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하게 되어 비로소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과정에서 해당 경전이 하나하나 펼쳐질 때마다 실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다만 아쉬움 점은 대부분의 불경이 권수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수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중 일부 결정적인 자료는 전체가 온전한 상태로

1) 文明大, “高麗 13世紀 彫刻樣式과 開運寺藏 鷲峯寺木阿彌陀佛像의 研究,” 『강좌미술사』, 8(1996. 12).

발견되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다량의 중요한 불경을 담고 있었던 아미타불상은 본래 개운사에서 조성한 불상이 아니라, 멀리 충남 아산의 鷲峯寺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옮겨온 이후로 한동안 명부전의 본존불 옆에 봉안되어 왔던 것으로 전한다. 그 후 명부전이 철거되는 바람에 가건물에 명부전의 여러 존상들과 함께 방치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가 복장품이 도난을 맞았으나, 다행스럽게도 그 중 일부 자료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내력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당시 수습한 복장유물 가운데 자료적 가치가 중요한 화엄경 사경과 판경을 대상으로 그 현상과 특징을 분석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刊寫시기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2. 開運寺 腹藏遺物の 現況

개운사의 목조아미타불상에서 수습된 복장유물은 화엄경 등의 전적류와 발원문 등 낱장으로 된 문서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불상에서 수습된 지류문화재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 개운사 아미타불상 복장유물 현황

구분	典籍類			文書類
	古板經	古寫經	朝鮮本	
수량	15권	7권	6책	13점
합계	28점			13점

이처럼 복장유물은 전적류 28점과 문서류 13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전적류에는 낱장 상태로 수습된 유물이 2종이 포함되어 있다.

2.1 典籍類

전적류는 대부분 화엄경으로 고판경이 15점, 고사경이 7종으로 조사되었으며, 후대에 납인한 것으로 보이는 조선본 불서 6종이 포함되어 있다. 복장유물 중 전적류의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개운사 아미타불상 전적류 복장유물

구분	경명	분량	현상	특징	
古板經 (15권)	大方廣佛華嚴經	晉本 卷2	17장(失)	卷首缺失/軸棒없음	寫經體字/‘花’字
		晉本 卷33	19장(完)	首尾完全/軸棒없음	寫經形式
		晉本 卷44	미상(失)	卷首缺失/軸棒있음	寫經形式
		晉本 卷48	18장(失)	卷首缺失/軸棒없음	附音義
		周本 卷2	16장(失)	卷首缺失/軸棒없음	寫經體字
		周本 卷18	5장(失)	卷首缺失/軸棒없음	寫經體字
		周本 卷28	1장(失)	變相圖/卷首題	寫經體字/‘花’字
		周本 卷35	14장(失)	卷首缺失/軸棒없음	寫經體字
		周本 卷49	10장(失)	卷首缺失/軸棒없음	附音義
		周本 卷63	8장(失)	首尾不完/軸棒없음	寫經形式/則天文字
		周本 卷78	19장(失)	卷首缺失/軸棒없음	寫經形式/則天文字
		貞元本 卷10	16장(失)	卷首缺失/軸棒없음	附音義
		貞元本 卷16	15장(完)	首尾完全/軸棒없음	寫經體字
		貞元本 卷20	12장(失)	卷首缺失/軸棒있음	寫經體字
	靈寶經 卷4	1장(失)	낱장 1장	첩장	
古寫經 (7권)	大方廣佛華嚴經	晉本 卷36	21장(失)	卷尾缺失/軸棒없음	白紙墨書
		晉本 卷56	20장(失)	卷首缺失/軸棒없음	白紙墨書
		周本 卷24	18장(完)	首尾完全/軸棒없음	白紙墨書/‘花’字
		周本 卷26	19장(失)	卷首缺失/軸棒없음	白紙墨書/則天文字
		周本 卷33	13장(完)	首尾完全/軸棒없음	白紙墨書/‘花’字
		周本 卷39	19장(完)	首尾完全/軸棒없음	白紙墨書
	菩薩本行經 卷中	14장(失)	卷首缺失/軸棒없음	白紙墨書	
朝鮮本 (6책)	金剛經川老解	1책	표지완전	필사경 합부	
	佛說阿彌陀經要解	3책	표지없음		
	圓頓成佛論	1책	표지완전	看話決疑論, 禪家龜鑑, 禪教釋(필사) 합부	
	華嚴經疏鈔 卷51-52	1책	표지없음	中國本覆刻	

불상에서 수습된 전적류는 화엄경의 고판경과 고사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교 경전으로 보이는 고판본 『靈寶經』 1장과 고사경 『菩薩本行經』 1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후대에 중수하면서 추가로 납입한 조선시대에 간행된 불서 6종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러한 유물의 층위로 보아 불상은 고려 초기에 조성된 이후 고려후기와 임란직후,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걸쳐 적어도 3차례 이상 중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2 文書類

문서류는 모두 낱장 형태로 되어 있는 중수발원문 4점과 인본다라니 8점이 수습되었으며, 후대에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낱장의 아미타경 1점 등 모두 13점으로 파악되었다. 문서류의 세부 유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 개운사 아미타불상 문서류 복장유물

구분	명칭	수량	현상	특징	연대
陀羅尼	印本陀羅尼	8종	일부훼손	朱·墨印	고려-조선
拓本	木刻重修文	1점	하단부분	墨搨	至元9(1272)
發願文	中幹發願文	1점	완전	墨書	至元11(1274)
	崔椿發願文	1점	완전	墨書	至治2(1322)
	和光發願文	1점	완전	墨書	至治2(1322)
簇子	簇子阿彌陀經	1점	일부훼손	墨印	同治辛未(1871)

문서류 복장유물 중 주목되는 자료는 불상의 중수와 관련된 중수문과 발원문이다. 중수문은 고려 1272(至元 9)년 그 내용을 목판에 새겨 찍어 낸 자료이나, 전체 중 하단부분 일부만 수습되어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불상의 복장과 관련된 자료 중 목각 인출한 경우는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한다. 그 외에도 고려후기에 中幹·崔椿·和光 등 3인이 불상 중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중수발원문이 수습되어 불상의 조성과 중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사료로 생각된다.

3. 開運寺本 華嚴經의 現狀

3.1 寫經類

개운사 아미타불복에서 수습된 화엄경 사경은 모두 6종으로, 이 중 주본이 2종이며 주본은 4종이다. 이들 사경 6종은 모두 백지에 묵서한 백지묵서사경으로 전체적 특징과 현상은 아래와 같다.

<표 4> 사경류의 형태적 특징 및 현상

譯本	卷次	張數	크기(cm)	行字數	寫成時期	種類	現狀
晉本	卷36	21장(缺)	29.5×1178	25-27행 16-17자	11-12C	白紙墨書	卷尾缺失/軸棒없음 表紙없음/寫經體字
	卷56	20장(缺)	29.2×900	24-27행17자	11-12C	白紙墨書	卷首缺失/軸棒없음 表紙없음/寫經體字
周本	卷24	18장(完)	27.7×880	27행17자	9-10C	白紙墨書	首尾完全/軸棒없음 表紙없음/花'字/ 寫經體字
	卷26	19장(缺)	28.0×720	20-30행17자	9-10C	白紙墨書	卷首缺失/軸棒없음 表紙없음/則天文字
	卷33	13장(完)	29.7×710	26-28행17자	11-12C	白紙墨書	首尾完全/軸棒없음 表紙있음/花'字
	卷39	19장(完)	28.5×1115	25-28행17자	11-12C	白紙墨書	首尾完全/軸棒없음 表紙있음/花'字

이상의 6종은 모두 백지에 먹물로 쓴 白紙墨書寫經으로 사성시기가 고려 초기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축봉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며, 권수와 권미가 온전한 사경은 주본 권24, 33, 39의 3권에 해당된다. 그리고 자수는 모두 17자로 동일하나 각 장의 행수는 20행부터 30행에 이르고 있어 매우 다양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본 권33과 권39는 여러 특징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권차만 다른 동일한 사경으로 보인다. 각 사경의 세부적 현상은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1.1 晉本 華嚴經

1) 晉本 卷36

이 사경은 동진의 佛馱跋陀羅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 晉本 60권 중 권제 36의 ‘離世間品之6’을 백지에 먹물로 필사한 白紙墨書寫經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와 권말의 일부가 결락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상단부에 누습이 심한 상태이다. 전체는 21장이 粘連되어 있으며, 크기는 29.5×1,178cm이다.

卷首題는 ‘經題/譯者/品題’의 3행으로 구분되어 있다.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烏絲欄이며, 각 張은 25-27行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6-17字씩 쓰여 있다. 종이의 특징은 黃染하지 않은 하얀 저지로 도침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씨는 전체적으로 사경체로 쓰였으나, 唐代의 전문 사경승이 쓴 전형적인 사경서체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경의 일부에 수정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독경이나 학습을 목적으로 轉寫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寫成한 시기는 고려전기인 대략 11-1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2) 晉本 卷56

이 사경은 동진의 佛馱跋陀羅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 晉本 60권 중 권제 56의 ‘入法界品第34之12’를 백지에 먹물로 필사한 白紙墨書寫經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와 권수의 일부가 결락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누습으로 인해 상단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체는 20장이 粘連되어 있으며, 크기는 29.2×900cm이다.

권수 일부가 결락되어 卷首題 형식은 알 수 없으나, 권미제는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五十六'으로 되어 있다.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烏絲欄이며, 각 張은 24-27行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6-17字씩 쓰여 있다. 종이의 특징은 저지로 黃染이 잘되어 있으며, 가로로 굵은 발문이 나타나 있다. 글씨는 전체적으로 사경체로 쓰였으나, 唐代의 전문 사경승이 쓴 유려한 사경서체의 수준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경은 공덕을 목적으로 사성하여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寫成한 시기는 고려전기인 대략 11-1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3.1.2 周本 華嚴經

1) 周本 卷24

이 사경은 당나라 측천무후 때 實叉難陀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80권 중 권제24의 '十廻向品第25之2'를 황저지에 먹물로 필사한 白紙墨書寫經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가 결락되어 있으며, 비록 하단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누습 흔적이 있으나 전체가 온전한 상태이다. 전체는 18장이 粘連되어 있으며, 크기는 27.7×880cm이다. 권수로부터 권미까지 온전하여 卷首題가 잘 남아 있다. 권수제는 '大方廣佛華嚴經十廻向品第卅五之二'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卷卅四 新譯'이 쓰여 있으나, 다음 행에 역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비록 역자표시는 없으나, 권수제로 보아 주본 권24에 해당되는 사경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권수제가 한행에 '經題 + 品題 + 品次 / 卷次 / 譯本'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고려시대 화엄경 사경 또는 관경의 권수제와는 전혀 다르다. 이는 오히려 중국의 수·당대 사경의 권수제 형식과 동일하다. 현재 국내에는 이와 동일한 사경이 없으나, 다만 신라 755년에 완성된 사경으로 字數가 34자인 호암본과는 권수제의 형식이 완전히 일치되고 있다.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烏絲欄이며, 각 張은 27行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7字씩 쓰여 있다. 종이의 특징은 저지로 黃染이 잘되어 있으며, 가로로 가느다란 발문이 나타나 있다. 글씨는 전체적으로 사경체로 쓰였으나, 唐代의

전문 사경승이 쓴 유려한 사경서체의 수준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경은 우리나라에서 사성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寫成한 시기는 신라 말에서 고려초기인 대략 9-10세기경으로 추정된다.

2) 周本 卷26

이 사경은 당나라 측천무후 때 實叉難陀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80권 중 권제26의 ‘十廻向品第25之4’를 황저지에 먹물로 필사한 白紙墨書寫經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와 권수의 일부가 결락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누습으로 인해 상단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체는 19장으로 粘連되어 있으며, 크기는 28.0×720cm이다. 권수 일부가 결락되어 卷首題 형식은 알 수 없으며, 권미제는 ‘大方廣佛花嚴經卷第卅六’으로 되어 있다.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烏絲欄이며, 각 張은 20-30행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6-17字씩 쓰여 있다. 이 사경의 후반부에 武周制字인 ‘地’(墨)자가 총 4회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무주제자는 則天武后가 황제로 집권한 후 唐의 국호를 ‘周’로 일시 변경하고 자신의 집권을 기념하기 위하여 본인의 이름자인 ‘照’자를 비롯하여 ‘天·地·日·月·人·生·世·星·正·授·國·初·臣·證’ 등 20여자를 새로 만들어 사용토록 한 것이다. 종이의 특징은 저지로 黃染이 약간되어 있으며, 가로로 굵은 발문이 나타나고 있다. 글씨는 전체적으로 사경체로 쓰였으나, 唐代의 전문 사경승이 쓴 유려한 사경서체의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경은 개인의 공덕을 목적으로 사성하여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보이며, 寫成한 시기는 나말려초인 대략 9-10세기경으로 추정된다.

3) 周本 卷33

이 사경은 당나라 측천무후 때 實叉難陀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80권 중 권제33의 ‘十廻向品第25之11’을 백저지에 먹물로 필사한 白紙墨書寫經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로 표지와 본문의 전체 내용이 온전한 상태이나 축봉은 없으며, 상단부에는 누습으로 인해 일정한 간격으로 흔적이 보이고 있다. 권수에 붙어있는 표지에는 표제가 묵서되어 있고, 그 아래로 ‘周’자가 기재되어 있어 주본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지의 중앙부분에 두루마리를 묶는 비단으로 만든 끈[卷緒]이 일부 남아 있다. 전체는 13장이 粘連되어 있으며, 전체 길이는 29.7×710cm이다.

卷首題는 ‘經題/譯者/品題’ 형식의 3행으로 구분되어 있고, 경제는 ‘大方廣佛花嚴經卷第三十三’으로 권미제와 동일한데, 다만 ‘華嚴經’의 ‘華’자가 ‘花’로 되어 있다.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烏絲欄이며, 각 張은 26-28行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7字씩 쓰여 있다. 종이의 특징은 하얀 저지로 도침이 잘되어 있으며, 가로로 가는 발문이 나타나 있다. 주요한 특징으로 사경의 제6장 ‘國’(11-13)자에 무주제자(閉)가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글씨는 전체적으로 사경체로 쓰였으나, 고사경에 보이는 서체의 특징이 많이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사경의 서체는 唐代의 전문 사경승이 쓴 유려한 서체의 수준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경은 공덕을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성하여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寫成한 시기는 고려전기인 대략 11-1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4) 周本 卷39

이 사경은 당나라 축천무후 때 實叉難陀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80권 중 권제39의 ‘十地品第26之6’을 백저지에 먹물로 필사한 白紙墨書寫經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로 표지와 본문의 전체 내용이 온전한 상태이나 축봉은 없으며, 상단부에는 누습으로 인해 일정한 간격으로 흔적이 보이고 있다. 권수에 붙어있는 표지에는 표제가 묵서되어 있고, 그 아래로 ‘周’자가 기재되어 있어 주본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지의 중앙부분에 두루마리를 묶는 비단으로 만든 끈[卷緒]이 일부 남아 있다. 전체는 19장이 粘連되어 있으며, 전체 길이는 28.5×1115cm이다.

卷首題는 ‘經題/譯者/品題’ 형식의 3행으로 구분되어 있고, 경제는 ‘大方廣佛花嚴經卷第三十九’으로 권미제와 동일한데, 다만 ‘華嚴經’의 ‘華’자가 ‘花’로 되어 있다.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烏絲欄이며, 각 張은 25-28行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7字씩 쓰여 있다. 종이의 특징은 하얀 저지로 도침이 잘되어 있으며, 가로로 가는 발문이 나타나 있다. 주요한 특징으로 사경의 제1장 등에 ‘國’(19-12)자의 무주제자 ‘囿’가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글씨는 전체적으로 사경체로 쓰였으나, 고사경에 보이는 서체의 특징이 많이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사경의 서체는 唐代의 전문 사경승이 쓴 유려한 서체의 수준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경은 공덕을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성하여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寫成한 시기는 고려전기인 대략 11-1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 사경은 서체와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앞의 周本 권33과 권차만 다른 동일한 사경으로 보인다.

3.2 板經類

개운사 아미타불 복장유물에 포함되어 있는 화엄경 판경류는 모두 14종에 해당된다. 이 중 진본은 4종, 주본은 7종, 정원본은 3종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의 세부적 특징과 현상은 아래와 같다.

<표 5> 판경류의 형태적 특징 및 현상

譯本	卷次	張數	크기(cm)	行字數	年代	現狀
晉本	卷2	17장(失)	29.5×870	26행17자	10-11C	卷首缺失/軸棒없음 간혹寫經體字/‘花’字
	卷33	19장(完)	27.5×900	26행17자	9-10C	首尾完全/軸棒없음 寫經體字
	卷44	1권(失)	27.8×?	26행17자	9-10C	卷首缺失/軸棒있음 寫經體字
	卷48	18장(失)	30.7×860	24행17자	11-13C	卷首缺失/軸棒없음 附音義

譯本	卷次	張數	크기(cm)	行字數	年代	現狀
周本	卷2	16장(失)	28.9×800	26행17자	10-11C	卷首缺失/軸棒없음 寫經體字
	卷18	5장(失)	29×250	26행17자	10-11C	卷首缺失/軸棒없음 寫經體字/花'字
	卷28	1장(失)	29.2×59	26행17자	10-11C	變相圖 날장 1장 寫經體字/花'字
	卷35	14장(失)	28.0×620	26행17자	10-11C	卷首缺失/軸棒없음 寫經體字/卷次
	卷49	10장(失)	30.6×460	24행17자	11-13C	卷首缺失/軸棒없음 附音義
	卷63	8장(失)	27.8×233	27행17자	9-10C	首尾不完/軸棒없음 寫經體字/則天文字
	卷78	19장(失)	28.0×910	26행17자	9-10C	卷首缺失/軸棒없음 寫經體字/則天文字
貞元本	卷10	16장(失)	30×810	24행17자	11-13C	卷首缺失/軸棒없음 附音義
	卷16	15장(完)	27.5×700	26행17자	10-11C	首尾完全/軸棒없음 寫經體字/花'字
	卷20	12장(失)	28.3×558.5	26행17자	10-11C	卷首缺失/軸棒있음 寫經體字/卷末墨書

3.2.1 晉本 華嚴經

1) 晉本 卷2

이 관경은 東晉의 佛馱跋陀羅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 晉本 60권 중 권제 2의 ‘世間淨眼品第1之2’를 목판에 새겨 백저지에 인쇄한 목판본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와 권수의 8장, 그리고 축봉이 결락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상·하단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누습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전체는 17장이 粘連되어 있으며, 크기는 29.5×870cm이다. 비록 권수 일부가 결락되어 卷首題 형식은 알 수 없으나, 권미제가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로 되어 있는데, 다만

‘華嚴經’의 ‘華’자가 ‘花’로 되어 있다. 판수제는 ‘晉本經第二卷 第0張’으로 장차표시는 ‘張’으로 되어 있으며, 제9장의 크기는 23.5×51cm이다. 권미제와 판수제를 통해 이 판본이 진본 권2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없으며, 각 張은 26行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7字씩 배자되어 있다. 종이의 특징은 하얀 저지로 도침이 잘되어 있으며, 가로로 굵은 발문이 나타나 있다. 字體는 전체적으로 방필의 구양순체가 가미된 唐代的 사경체로 판각되어 있으나, 사경체자의 일부가 정자체로 바뀌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판본은 고려초기인 대략 10-11세기 무렵에 사경을 보고 쓴 판하본을 바탕으로 판각하여 印出한 것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2) 晉本 卷33

이 판본은 東晉의 佛馱跋陀羅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 晉本 60권 중 권제 33의 ‘普賢菩薩行品第31’과 ‘寶王如來性起品第32’를 목판에 새겨 황저지에 인쇄한 목판본 불경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가 결락되어 있으며, 비록 권수의 일부에 훼손이 보이고 전체적 일정한 간격으로 누습 흔적이 보이고 있으나, 권수와 권미가 온전한 상태이다. 전체는 19장이 粘連되어 있으며, 크기는 27.5×900cm이다. 이 책은 권수로부터 권미까지 온전하여 卷首題와 卷尾題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권수제는 ‘大方廣佛華嚴經普賢菩薩行品第卅一’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卅三’이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 행에 역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비록 역자표시는 없으나, 권수제로 보아 진본 권33에 해당되는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권수제가 한행에 ‘經題+品題+品次 / 卷次’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고려시대 화엄경 사경 또는 판본의 권수제와는 전혀 다르다. 이는 오히려 중국의 수·당대 및 신라시대 고사경의 권수제 형식과 동일하다.²⁾ 권미제는 ‘大方廣佛華嚴經第卅

2) 이와 가장 유사한 불경이 현재 성암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진본 화엄경』 권20이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일찍이 정재영에 의해 소개되었으며(鄭在永,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研究』 제7집(2001)), 그 후 필자에 의해 서지적 검토

三'으로 되어 있어 권수제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권차와 품차의 숫자 '三十'이 '卅'으로 약기되어 있다. 그리고 권차의 造卷으로 보아 60권본으로 판단된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없으며, 각 張은 26行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7字씩 쓰여 있다. 종이의 특징은 저지로 黃染이 잘되어 있으며, 가로로 굵은 발문이 나타나 있다. 字體는 전체적으로 마치 붓으로 쓴 것과 같은 사경체로 되어 있으며, 唐代의 전문 사경승이 쓴 유려한 사경서체와 매우 흡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경은 전문 사경승이 쓴 사경을 저본으로 목판에 판각하여 인쇄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판각 시기는 신라 말에서 고려초기인 대략 9-10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

3) 晉本 卷44

이 판경은 東晉의 佛馱跋陀羅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 晉本 60권 중 권제 44의 '入法界品第34之1'을 목판에 새겨 황저지에 인쇄한 목판본 불경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와 권수의 일부에 결락되어 있으며, 또한 일정한 간격으로 누습 흔적이 보이고 권수의 일부에 훼손이 심한 상태이다. 권수의 4장 이후는 더 이상 펼치기가 곤란한 상태로 고착되어 있어 전체 장수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알 수 없으나, 상하 크기는 27.8cm이다. 이 책은 권수의 일부가 결실되어 있고 권미는 경화로 확인이 곤란하여 卷首題와 卷尾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없으며, 각 張은 26行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7字씩 쓰여 있다. 종이의 특징은 저지로 黃染이 잘되어 있으며, 가로로 굵은 발문이 나타나 있다. 字體는 전체적으로 마치 붓으로

가 있었다(宋日基, “古代 동아시아 書籍의 卷頭事項 變遷考,”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회, 『文獻情報學報』 제6집(2003)). 다만 이 2종 불경의 권수제 형식에서 卷次 표시가 있고 없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경에서 판경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판본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쓴 것과 같은 사경체로 되어 있으며, 唐代의 전문 사경승이 쓴 유려한 사경서체와 매우 흡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특징으로 보아 이 판경은 앞의 진본 권33과 동일한 계통의 판본으로 판단된다. 이 판경은 전문 사경승이 쓴 사경을 저본으로 목판에 판각하여 인쇄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판각 시기는 신라 말에서 고려초기인 대략 9-10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

4) 晉本 卷48

이 판경은 東晉의 佛馱跋陀羅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 晉本 60권 중 권제 48의 ‘入法界品第34之5’를 목판에 새겨 황저지에 인쇄한 목판본 불경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와 권수의 9장, 그리고 권말의 축봉이 결락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누습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전체는 모두 18장이 粘連되어 있으며, 상하의 크기는 30.7cm이다. 권수 일부가 결락되어 卷首題 형식은 알 수 없으나, 권미제는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八’로 되어 있다. 판수제는 ‘晉經卷第四十八 第〇幅’으로 장차표시는 ‘幅’으로 되어 있으며, 제10장의 크기는 30.1×48cm이다. 권미제와 판수제를 통해 이 판본이 진본 권48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없으며, 각 張은 24行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7字씩 배자되어 있다. 권미에는 音義가 수록되어 있다.³⁾ 종이의 특징은 저지로 황염이 되어 있으며, 가로로 가는 발문이 나타나 있다. 字體는 전체적으로 방필의 구양순체로 보이며, 사경체자는 모두 정자체로 바뀌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판경은 고려초기인 대략 11-13세기 무렵에 송판본을 저본으로 복각하여 印出한 것을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고려본 화엄경 가운데 권말에 音義가 부재된 사례는 11세기 후기에 간행된 24행본부터 나타나고 있다. 최근 화엄경 음의의 기원에 관한 논고가 발표되어 주목된다. 李丞宰, “再雕本 華嚴經에 附載된 卷末 音義의 起源,” 『진단학보』 109(2010) 참고바람.

3.2.2 周本 華嚴經

1) 周本 卷2

이 판경은 당나라의 실차난타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80권 중 권제 2의 ‘世主妙嚴品第1之2’를 목판에 새겨 백저지에 인쇄한 목판본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와 권수의 8장, 그리고 축봉이 결락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상·하단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누습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전체는 16장이 粘連되어 있으며, 크기는 28.9×800cm이다. 비록 권수 일부가 결락되어 卷首題 형식은 알 수 없으나, 권미제는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로 되어 있다. 관수제는 ‘周二卷’ 또는 ‘周本經 第二卷 第〇張’으로 장차표시는 ‘張’으로 되어 있으며, 제2장의 크기는 23.2×50.5cm이다. 권미제와 관수제를 통해 이 판본이 주본 권2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없으며, 각 張은 26행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7字씩 배자되어 있다. 종이의 특징은 하얀 저지로 도침이 잘되어 있으며, 가로로 굵은 발문이 나타나 있다. 字體는 전체적으로 방필의 구양순체가 가미된 唐代의 사경체로 관각되어 있으나, 사경체자가 정자체로 바뀌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판경은 고려초기인 대략 10-11세기 무렵에 사경을 보고 쓴 판하본을 바탕으로 판각하여 印出한 것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질과 자체로 보아 앞의 진본 권2와 동일한 계통의 판본으로 판단된다.

2) 周本 卷18

이 판경은 당나라의 實叉難陀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80권 중 권제 18의 ‘明法品第18’을 목판에 새겨 황저지에 인쇄한 목판본 불경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와 권수의 8장, 그리고 축봉이 결락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상·하단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누습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현재 남아

있는 분량은 5장이 粘連되어 있으며, 크기는 29×250cm이다. 비록 권수가 결락되어 卷首題 형식은 알 수 없으나, 권미제는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八’로 되어 있는데, 다만 경제 ‘華嚴經’의 ‘華’자가 ‘花’로 되어 있다. 판수제는 ‘周本經 第十八卷 第〇張’으로 장차표시는 ‘張’으로 되어 있으며, 제10장의 크기는 23.2×50.2cm이다. 권미제와 판수제를 통해 이 판본이 주본 권18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없으며, 각 張은 26行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7字씩 배자되어 있다. 종이의 특징은 하얀 저지로 도침이 잘되어 있으며, 가로로 굵은 발문이 나타나 있다. 字體는 전체적으로 방필의 구양순체가 가미된 唐代의 사경체로 판각되어 있으나, 사경체자가 정자체로 바뀌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판경은 고려초기인 대략 10-11세기 무렵에 사경을 보고 쓴 판본을 바탕으로 판각하여 印出한 것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불상 조성시에 시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질과 자체로 보아 앞의 진본 권2와 동일한 계통의 판본으로 판단된다.

3) 周本 卷28

이 판경은 당나라의 實叉難陀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80권 중 권제 28의 ‘十廻向品第25之6’을 목판에 새겨 황저지에 인쇄한 목판본 불경이다. 이 자료는 현재 권수의 변상도와 권수제 일부만 남아 있으며, 변상도 크기는 29.2×59cm이다. 이 변상도와 동일한 형식을 지닌 판본은 아직까지 소개된 사례가 없는 유일한 것으로 사주가 보상화문으로 장엄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선이 굵게 새겨져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변상도의 앞쪽에 감색의 표지가 조금 붙어있어 표지가 사경 형식으로 장엄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卷首題는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八’로 되어 있는데, 다만 경제 ‘華嚴經’의 ‘華’자가 ‘花’로 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 다음 행에 역자가 표시되어 있어 신라 사경의 권수제 형식과는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권수제를 통해 이 판본이 주본 권28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경문의 내용을 모두 일실된 상태이므로 판식의 특징은 알 수 없다.

종이의 특징은 황염이 잘된 저지로 도침이 잘되어 있으며, 가로로 굵은 발문이 나타나 있다. 字體는 전체적으로 방필의 구양순체가 가미된 唐代의 사경체로 판각되어 있으나, 사경체자가 정자체로 바뀌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판경은 고려초기인 대략 10-11세기 무렵에 사경을 보고 쓴 판하본을 바탕으로 판각하여 印出한 것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잔편에 불과하여 그 외에 형태적 특징은 알 수 없으나, 앞의 진본 권18와 동일한 계통의 판본으로 판단된다.

4) 周本 卷35

이 판경은 당나라의 實叉難陀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80권 중 권제 35의 ‘十地品第26之2’를 목판에 새겨 황저지에 인쇄한 목판본 불경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와 권수의 1장, 그리고 축봉이 결락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하단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누습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현재 남아 있는 분량은 15장이 粘連되어 있으며, 크기는 28.0×62.0cm이다. 비록 권수가 결락되어 卷首題 형식은 알 수 없으나, 권미제는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卅五’로 되어 있다. 관수제는 ‘周卅五卷’ 장차는 ‘丈’으로 되어 있고, 제3장의 크기는 25.0×50.5cm이다. 권미제와 관수제를 통해 이 판본이 주본 권35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없으며, 각 張은 26행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7字씩 배자되어 있다. 종이의 특징은 하얀 저지로 도침이 잘되어 있으며, 가로로 굵은 발문이 나타나 있다. 字體는 전체적으로 唐代의 사경체로 판각되어 있는데, 사경체자가 정자체로 변화되기 이전에 판각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경은 고려초기인 대략 10-11세기 무렵에 사경을 저본으로 판각하여 印出한 것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5) 周本 卷49

이 판경은 당나라의 實叉難陀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80권 중 권제 49의 ‘普賢行品第36’을 목판에 새겨 황저지에 인쇄한 사간본 화엄경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와 권수의 9장, 그리고 권말의 축봉이 결락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누습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전체는 모두 10장이 粘連되어 있으며, 전체의 크기는 30.6×460cm이다. 권수 일부가 결락되어 卷首題 형식은 알 수 없으나, 권미제는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九’로 되어 있다. 판수제는 ‘周經 卷第四十九 第○幅’으로 장차표시는 ‘幅’으로 되어 있으며, 제3장의 크기는 24.5×48cm이다. 권미제와 판수제를 통해 이 판본이 주본 권49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없으며, 각 張은 24行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7字씩 배자되어 있다. 권미에는 音義가 수록되어 있다. 종이의 특징은 저지로 황염이 되어 있으며, 가로로 가는 발문이 나타나 있다. 字體는 전체적으로 방필의 구양순체로 보이며, 사경체자는 모두 정자체로 바뀌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판경은 고려초기인 대략 11-13세기 무렵에 송판본을 저본으로 복각하여 印出한 것을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전체적인 특징이 앞의 진본 권48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동일 계통의 판본으로 판단되며, 현재 국보 제203호로 지정되어 있는 성암본 주본 권6과 동일한 판본으로 보인다.

6) 周本 卷63

이 판경은 당나라의 實叉難陀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80권 중 권63의 ‘入法界品第39之4’를 목판에 새겨 황저지에 인쇄한 목판본 불경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가 결락되어 있으며, 권수와 권미가 일실되어 있다. 현존 분량은 장13에서 장18의 6장이 粘連되어 있으며, 크기는 27.8×233cm이다. 이 책은 권수와 권미까지 결실되어 卷首題와 卷尾題를 확인할 수 없으나, 경문의 내용

을 통해 주본 권63임이 확인되었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없으며, 각 張은 27行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7字씩 쓰여 있다. 종이의 특징은 저지로 黃染이 잘되어 있으며, 가로로 굵은 발문이 나타나 있다. 字體는 전체적으로 마치 붓으로 쓴 것과 같은 사경체로 되어 있으며, 唐代의 전문 사경승이 쓴 유려한 사경서체와 매우 흡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요한 특징으로 사경의 제13, 14장 등에 ‘國’자의 무주제자 ‘囿’가 많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따라서 이 판경은 전문 사경승이 쓴 사경을 저본으로 목판에 판각하여 인쇄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판각 시기는 신라 말에서 고려초기인 대략 9-10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특징으로 보아 진본 권33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7) 周本 卷78

이 판경은 당나라의 實叉難陀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80권 중 권78의 ‘入法界品第19之19’를 목판에 새겨 황저지에 인쇄한 목판본 불경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가 축봉이 없으며, 권수의 2장이 일실되어 있다. 현존 분량은 19장이 粘連되어 있으며, 크기는 28.0×91.0cm이다. 권수 일부가 결락되어 卷首題 형식은 알 수 없으나, 권미제는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十八’로 되어 있다. 관수제는 ‘周本 卷第七十八 第〇丈’으로 장차표시는 ‘丈’으로 되어 있으며, 제3장의 크기는 20.4×50.5cm이다. 권미제와 관수제를 통해 이 판본이 주본 권78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없으며, 각 張은 27行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7字씩 쓰여 있다. 종이의 특징은 저지로 黃染이 매우 잘되어 있으며, 가로로 굵은 발문이 나타나 있다. 字體는 전체적으로 마치 붓으로 쓴 것과 같은 사경체로 되어 있으며, 唐代의 전문 사경승이 쓴 유려한 사경서체와 매우 흡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요한 특징으로 사경의 제13장에 ‘正’자의 무주제자 ‘疋’가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따라서 이 판경은 전문 사경승이

쓴 사경을 저본으로 목판에 판각하여 인쇄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판각 시기는 신라 말에서 고려초기인 대략 9-10세기 무렵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특징으로 보아 진본 권33과 주본 권63 등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3.2.3 貞元本 華嚴經

1) 貞元本 卷10

이 판경은 般若가 당나라 貞元 연간에 한역한 『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40권 중 권10의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을 목판에 새겨 황저지에 인쇄한 사간본 화엄경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와 권수 제1장 15행이 결실되어 있고, 그리고 권말의 축봉이 탈거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누습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전체는 모두 17장이 粘連되어 있으며, 전체의 크기는 30.0×81.0cm이다. 권수 일부가 결락되어 卷首題 형식은 알 수 없으나, 권미제는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로 되어 있다. 판수제는 ‘貞元經 卷第十 第○幅’으로 장차표시는 ‘幅’으로 되어 있으며, 제2장의 크기는 24.3×48.9cm이다. 권미제와 판수제를 통해 이 판본이 정원본 권10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판식의 특징을 보면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없으며, 각 張은 24行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7字씩 배자되어 있다. 권미에는 音義가 수록되어 있다. 종이의 특징은 저지로 황염이 되어 있으며, 가로로 가는 발문이 나타나 있다. 字體는 전체적으로 방필의 구양순체로 보이며, 사경체자는 모두 정자체로 바뀌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 판경은 고려초기인 대략 11-13세기 무렵에 송판본을 저본으로 복각하여 印出한 것을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전체적인 특징이 앞의 진본 권48과 주본 권49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동일 계통의 판본으로 판단된다.

2) 貞元本 卷16

이 판경은 般若가 당나라 貞元 연간에 한역한 『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40권 중 권16의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을 목판에 새겨 백저지에 인쇄한 사간본 화엄경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만 결실되고 권수와 권말이 온전하다. 그러나 권말의 軸棒은 탈거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누습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전체는 모두 15장이 粘連되어 있는데 제1장의 크기는 20.0×49.0cm이며, 전체의 길이는 27.5×700cm이다. 卷首題와 권미제는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六’로 동일하나 권미제의 경우 ‘華’자가 ‘花’자로 되어 있으며, 권수의 경제와 품제 아래에 譯者가 기재되어 있다. 권수제로 보아 이 책이 정원본 권16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판본으로 주목된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없으며, 각 張은 26行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7字씩 배자되어 있다. 종이의 특징은 저지로 도침이 잘되어 있으며, 가로로 가는 발문이 나타나 있다. 字體는 唐代의 전형적인 사경의 서체와 매우 흡사하며, 사경체자 필획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 사경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판각 수준이 돋보인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이 판경은 고려초기인 늦어도 10-11세기 무렵에 사경을 저본으로 판각 印出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생각된다.

3) 貞元本 卷20

이 판경은 般若가 당나라 貞元 연간에 한역한 『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40권 중 권20의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을 목판에 새겨 백저지에 인쇄한 사간본 화엄경이다. 장정은 권자본 형태이나 표지와 권수의 4장이 일실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누습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권말은 온전하며 軸棒이 남아 있다. 전체는 모두 12장이 粘連되어 있는데 제5장의 크기는 19.4×49.3cm이며, 전체의 길이는 28.3×558.5cm이다. 권미제는 ‘大方廣佛花嚴經卷第二十’으로 되어

있는데, 화엄경의 ‘華’자가 ‘花’자로 되어 있다. 권말의 권미제 아래에 ‘坪石莊戶長李資彥 奉上’이라는 목서가 보이고 있는데, 복장전적 가운데 유일한 목서 기록이다. 권미제로 보아 이 책이 정원본 권20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계선은 없으며, 각 張은 26行으로 되어 있는데 1행의 자수는 17字씩 배자되어 있다. 종이의 특징은 저지로 도침이 잘되어 있으며, 가로로 가는 발문이 나타나 있다. 字體는 唐代的 전형적인 사경의 서체와 흡사하며, 사경체자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이 판경은 고려초기인 대략 10-11세기 무렵에 사경을 정서하여 판각 印出하여 소지하고 있던 평석장 호장인 李資彥이 불상 조성 시에 시납한 것으로 생각된다.

4. 開運寺本 華嚴經의 特徵

4.1 寫經類

개운사 복장전적에는 백지목서사경 7종이 발견되었다. 이 중 대부분이 화엄경으로 모두 6종이 수습되었는데, 이들 사경은 신라하대로부터 고려전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운사본 화엄경의 형태적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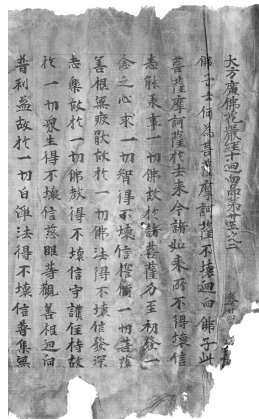
<표 6> 개운사본 화엄경 사경의 주요 형태적 특징

譯本	卷數	種類	卷首題	行字數	裝幀	特徵	寫成時期
晉本	卷36	白紙墨書	3행	25-27행 16-17자	卷子		11-12C
	卷56	白紙墨書	[3행]	24-27행 17자	卷子		11-12C
周本	卷24	白紙墨書	1행	26-27행 17자	卷子	卷次 卅四 花	9-10C
	卷26	白紙墨書	[1행]	20-30행 17자	卷子	卷次 卅六 則天文字	9-10C
	卷33	白紙墨書	3행	26-28행 17자	卷子	表紙/花	11-12C
	卷39	白紙墨書	3행	25-28행 17자	卷子	表紙/花	11-12C

4.1.1 卷首題

권수제의 형식은 고대 불경을 식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에 사성된 사경 가운데 화엄경과 법화경 등 다권본으로 구성된 불경의 경우, 권수제는 책머리에 경제와 품제, 그리고 그 사이에 역자표시 등 모두 3행으로 기입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개운사본 6종의 화엄경에는 이와는 다르게 역자표시는 없고 다만 경제와 품제가 1행으로 기입된 형식의 사경도 보이고 있다.

개운사본 사경 화엄경에는 진본 2종과 주본 4종으로 조사되었는데, 주본 4종 중 권24와 권26의 2종의 사경에서 권수제가 1행으로 되어 있어 주목되고 있다. 1행으로 된 권24의 권수제는 ‘大方廣佛花嚴經十廻向品第卅五之二’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卷卅四 新譯’이 쓰여 있다.(그림1 참고) 즉 권24의 권수제는 經題인 ‘大方廣佛花嚴經’, 品題인 ‘十廻向品’, 品次인 ‘第卅五之二’이 한 몸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로 卷次인 ‘卷卅四’와 譯本人 ‘新譯’이 기입되어 있다. 따라서 권24의 권수제는 ‘經題 + 品題 + 品次 / 卷次 / 譯本’의 형식으로 기입되어 있어 3행으로 기입된 불경의 형식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주본 권24의 권수제

그리고 경제에 보이는 ‘華’자가 ‘花’자로 되어 있으며, 품차와 권차의 숫자 표기가 ‘第卅五之二’와 ‘卷卅四’로 되어 있어 ‘二十’을 ‘卅’으로 줄여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권수제의 특징을 지닌 사경은 대체로 신라하대에서 고려초기인 9-10세기 사이에 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입증할 만한 국내자료는 극히 희귀한 실정이나, 다행스럽게도 호암본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과 권수제 형식이 완전히 동일하다. 또한 중국의 둔황 석실에서 발견된 수·당대에 쓰여진 다량의 화엄경 사경과는 완전히 일치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평안시대에 쓰인 사경과도 동일한 형식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동아시아에서 6세기부터 9세기 사이에 유통되었던 사경의 권수제 형식은 모두 동일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⁴⁾

4.1.2 行字數

개운사본 화엄경 사경에 보이는 행자수는 모두 일정하지 않다. 행수는 적게는 20자부터 많게는 30자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한 행의 자수는 대체로 17자로 정형화 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5행 이하 또는 28행 이상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26행에서 27행사이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적 정형적인 신라시대 사경인 권24의 경우에는 대부분 26행과 27행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대 사경으로 판단하는 하나의 준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신라시대 17자본의 온전한 사경이 전래하지 않아 직접 비교할 만한 자료는 매우 희귀한 실정이다.⁵⁾ 그나마 권24와 권26이 신라사경에 가장 근접한 자료일 것이다.

4)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검토해 왔다. 최근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일본의 東北大學 東北亞洲研究中心이 주관한 ‘東아시아出版文化研究’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으니 참고를 바란다(宋日基, “古代 동아시아 佛經의 ‘卷首題形式’ 考察,” 東아시아出版文化研究(2010. 3), 135-155).

5) 천혜봉 선생은 현존하는 신라백지묵서사경으로 호암미술관의 『金光明經』 권2를 들고 있으며(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135), 그 외에도 필자는 현재 기림사에 소장되어 있는 『楞嚴經』과 『道行經』을 주목하고 있다.

4.2 板經類

개운사에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불 불복에서 수습된 목판본은 모두 15종으로 도교경전인 「靈寶經」 1종을 제외하면, 모두 「화엄경」으로 14종에 이르고 있다. 화엄경 14종을 역본에 따라 구분해 보면, 진본이 4종, 주본이 7종, 그리고 정원본이 3종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화엄경은 목판에 판각하여 간행된 목판본으로 간행 시기는 대략 신라하대로부터 고려전기 사이로 추정된다. 장정의 형태는 모두 권자본이며, 그밖에 세부적인 형태적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7> 개운사본 화엄경 판본의 주요 형태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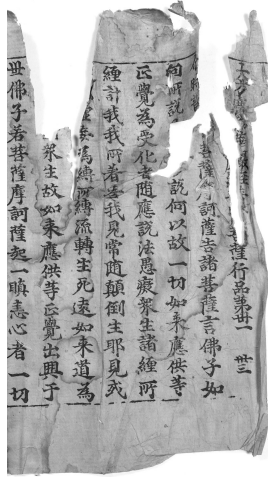
譯本	卷數	卷首題	行字數	板首題			裝幀	特徵	年代推定
				略題	卷次	張次			
晉本	卷2	[3행]	26행17자	晉本經	第二卷	第○張	卷子	花	10-11C
	卷33	1행	26행17자	·	·	·	卷子	品次 卅一 卷次 卅三	9-10C
	卷44	[1행]	26행17자	·	·	·	卷子		9-10C
	卷48	[3행]	24행17자	晉經	第四十八	○幅	卷子	音義	11-13C
周本	卷2	[3행]	26행17자	周 周本經	二卷 第二卷	三 第○張	卷子		10-11C
	卷18	[3행]	26행17자	周本經	第十八	第○張	卷子	花	10-11C
	卷28	3행	[26행17자]	·	·	·	卷子	變相/花	10-11C
	卷35	[1행]	26행17자	周	卅五卷	○丈	卷子	卷次 卅五	10-11C
	卷49	[3행]	24행17자	周經	第四十九	○幅	卷子	音義	11-13C
	卷63	[1행]	27행17자	·	·	·	卷子	則字	9-10C
貞元本	卷78	[1행]	26행17자	周本	第七十八	○丈	卷子	則字	9-10C
	卷10	[3행]	24행17자	貞元經	第十卷	○幅	卷子	音義	11-13C
	卷16	3행	26행17자	·	·	·	卷子	花	10-11C
	卷20	[3행]	26행17자	·	·	·	卷子	花	10-11C

4.2.1 卷首題

목판본의 경우 사본에 비해 형태적 특징이 전반적으로 정형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권수제의 경우 앞의 사경에 비해 크게 변화된 특징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수제는 책머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이 결실된 경우 그 형식을 잘 알 수 없다. 개운사본 목판본 화엄경 14종 중 권수부분이 결실된 판본이 무려 11종에 이르고 있다. 다만 3종만이 권수부분이 남아 있어 권수제의 형식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중 주본 권28은 변상도와 권수제 일부만 남아 있고 전체가 결실되어 있어 수미가 온전한 판본은 2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 권수부분이 남아 있는 진본 권33과 정원본 권16의 권수제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진본 권33은 이미 앞서 사경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사경인 주본 권24의 권수제와 매우 흡사하다. 진본 권33의 권수제는 ‘大方廣佛華嚴經普賢菩薩行品第卅一’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卅三’이 기입되어 있다.(그림 2 참고) 사경인 주본 권24와 다른 점은 주본의 역본 표시인 ‘新譯’이란 부분이 없을 뿐이다. 이러한 역본 표시는 진본에 상대적으로 ‘舊譯’이란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주본의 경우에서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진본 권33의 권수제는 ‘經題 + 品題 + 品次 / 卷次’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권말에 있는 권미제는 ‘大方廣佛華嚴經第卅三’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품차와 권차의 경우 사경본과 동일하게 ‘第卅一’과 ‘卅三’으로 되어 있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고려본과는 다르다. 권차와 품차에 보이는 ‘卅’은 ‘三十’을 간략하게 표시한 것으로, 숫자 二十一에서 四十九에 해당하는 권차나 품차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다.

현재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도 진본 권33과 동일한 형식의 목판본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성암문고에 수장되어 있는 진본 권20의 권수제와 흡사하나, 여기에는 권차 표시가 없다. 또한 중국의 송판본은 자수가 주로 14자내지 15자본만이 현존하고 있어 우리의 판본과는 형식이 매우 다르다. 비록 동일한 경전이 아닌 불경으로 영광 불갑사에 있는 『法華經』 권3의 경우가 유일한 비교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⁶⁾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 이러한 권수제의 특징은 당대 및 신라의 사경에서 판경으로 전환되는 초기단계인 8세기에서 10세기 전반에 등장했던 형식으로 보인다.



(그림 2) 진본 권33의 권수제

4.2.2 行字數

판경의 경우 행자수를 조사해 보니 간행시기의 선후 관계가 더욱 분명해졌다. 개운사본 14종의 목판본 화엄경 중에 자수는 모두 17자로 동일하였으나, 행수는 여러 유형이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많은 판본은 26행본으로 무려 10종에 이르고, 24행본은 단지 3종에 불과하며 27행본도 1종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26행본 10종 가운데 권수제가 1행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진본 권33 등 4종이며, 또한 27행본 또한 권수제가 1행으로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본 권63과 권78

6) 宋日基, “古代 동아시아 佛經의 ‘卷首題形式’ 考察,” 東アジア出版文化研究(2010. 3), 138-139.

에서는 측천문자가 발견되고 있어 더욱 주목되는 사례이다. 그리고 경명 중에 ‘華’자 대신 ‘花’자가 자주 나타나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앞서 살펴 본 사경의 경우에서 각 장의 행수가 26에서 27행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일치된다. 현재까지 보물로 지정된 목판본 화엄경의 경우 모두 24행본으로 되어 있어 확연히 구별된다. 현재 국내 전본 중 26행본은 성암본 진본 권20을 비롯하여 진본 권29와 권43 등 3종이 남아 있다.⁷⁾

그리고 24행본 3종에는 모두 권말에 ‘音義’가 부록되어 있으며, 또한 판수제가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 현행 유통본과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26행본 또는 27행본은 대략 8세기로부터 10세기 사이에 유행했던 형식으로 생각되며, 24행본은 판본대장경이 등장했던 11세기 이후에 나타난 형식으로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장정의 형태가 권자이며, 권수제의 형식이 1행으로 되어 있으면서 각 장의 행자수가 26-27행 17자인 목판본 화엄경은 그 판각시기가 이르면 8세기에서 늦어도 10세기 사이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結 論

이 연구는 서울 소재 개운사 아미타불좌상에서 수습된 복장전적 중 『화엄경』만을 대상으로 그 현상 및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여 대략적인 刊寫의 시기를 밝히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로 집약된다.

첫째, 개운사 아미타불상에서는 전적류 28점과 문서류 13점이 수습되었는데, 이들 복장유물의 층위적 성격으로 보아 불상이 조성된 이후 적어도 4차례 이상 중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적류에는 조선시대 간행된 목판본 4종(6책)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

7) 柳富鉉, “寺刊板 50卷本 華嚴經 卷第29 研究,” 『書誌學研究』 第29輯(2004. 12) 참고.

22점은 대략 9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刊寫된 경전이다. 경전 22점 중 2점을 제외한 20점이 모두 「화엄경」으로, 현재까지 소개된 단일 불상의 복장유물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화엄경 20점에는 사경류가 6종, 판경류가 14종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를 세분해보면 사경류에는 진본 2종과 주본 4종이며, 판경류에는 진본 4종, 주본 7종, 정원본 3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화엄경 20종 가운데 권수와 권미가 온전한 경우는 사경 중 주본 권24의 1종과 판경 중 진본 권33과 정원본 권16의 2종 등 모두 3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3종에 사경 주본 권24와 판경 진본 권33은 권수제 형식이 ‘經題 + 品題 + 品次 / 卷次 / 譯本’과 ‘經題 + 品題 + 品次 / 卷次’의 1행으로 되어 있어 현재 보물로 지정된 3행 형식의 국내 전본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행자수를 분석해 본 결과, 字數는 모두 17자본으로 국내전본과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행수의 경우 사경류는 24행에서 30행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주로는 26행으로 조사되었으며, 판경류는 대부분 26행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따라서 기본적으로 장정의 형태가 권자본인 불경의 경우에 있어서 권수제가 1행이면서 동시에 각 장의 행수가 26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字體에 사경 체자가 보인다면, 대체로 9-10세기 사이에 刊寫된 자료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개운사 복장본 화엄경 20점 중에는 적어도 4점 이상이 신라하대에 간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보급 전적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나머지 13점도 고려 초기에 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장전적은 오랜 세월동안 불복에 봉안되어 누습과 충해가 나타나고 일부 유물에는 경화과정 이 상당히 진행되어 펼쳐 볼 수 없는 상태이므로 시급히 보존처리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장유물은 단지 아미타불 1구에서 수습된 자료인데, 본래는 삼존불 형식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굴이 기대되는 바이다.

주지하다시피 근래 중국 측에서는 세계최고의 목판인쇄물인 「無垢淨光大陀

羅尼經」을 한국의 인쇄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에서 간행된 인쇄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는 영토문제인 동북공정에 이어 ‘출판공정’을 야기하려는 음모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출판공정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개운사 불상에서 발견된 화엄경으로, 이는 우리나라에서 8세기에 간행된 최고의 목판인쇄물 이후 2세기 동안의 출판 공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결정적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급히 개운사 전적문화재에 대한 전면적인 보존처리가 실시되어 보다 면밀한 학술적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資料集]

- 『(影印)中華大藏經』. 臺北: 中華書局, 1984.
- 『(影印)高麗大藏經』. 서울: 동국대학교, 1957-1976.
- 『(影印)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대전: 문화재청, 2000.
- 『(影印)無垢淨光大陀羅尼經』. 대전: 문화재청, 1999.
- 俄羅斯科學院 東方研究所 聖彼得堡分所. 『俄藏黑水城文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 『英藏敦煌文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 『書道全集』. 東京: 平凡社, 1965.
- 『敦煌寶藏』. 臺北: 商務印書館, 1981-?.
- 『西域美術』(3冊). 東京: 講談社, 1982.
- 山西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 『應縣木塔遼代秘藏』. 北京: 文物出版社, 1991.
- 『한국서예사특별전논문집』. 서울: 예술의 전당, 1998.
- 敦煌研究院. 『敦煌: 紀念敦煌藏經洞發現一百周年』. 北京: 朝華出版社, 2000.
- 磯部彰 編. 『台東區立書道博物館 所藏 中村不折舊藏禹域墨書集成』: 文部科學省科學研究費特定領域研究‘東アジア出版文化研究’總括班. 東京: 二玄

社, 2005.

[單行本]

-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 藤枝晃. 『高昌殘影』. 京都: 法藏館, 1978.
- 藤枝晃. 『文字の文化史』. 東京: 岩波書店, 1971.
- 宋日基. 『靈光 佛甲寺의 佛教文獻』. 서울: 태학사, 2005.
- 宿白. 『唐宋時期的雕板印刷』. 北京: 文物出版社, 1999.
- 이승재. 『50卷本 華嚴經 研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藏中進. 『則天文字の研究』. 東京: 翰林書房, 1995.
- 長澤規矩也. 『和漢書の印刷とその歴史』. 東京: 吉川弘文館, 1952.
- 田中塊堂. 『日本古寫經現存目錄』. 京都: 思文閣, 1973.
- 中村不折. 『新疆と甘肅の探險』. 東京: 雄山閣, 1934.
- 千惠鳳.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調查研究』. 서울: 成保文化財團, 1988.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 坪井俊映. 『佛教書誌學』. 京都: 佛教大學, 1967.

[論文]

- 강순애. “大方廣佛華嚴經의 流通本에 대한 고찰.” 『창립20주년기념논문집』(서울: 한성대학교문헌정보학과, 1979).
- 文明大. “新羅華嚴經寫經과 그 變相圖의 研究.” 『韓國學報』 제14집(1979).
- 宋日基. “益山 王宮塔 出土 『百濟金紙角筆 金剛寫經』의 研究.” 『馬韓·百濟文化』 제16집(2004. 12).
- 宋日基. “釋迦塔本 『無垢淨光經』 經板의 復原 檢討.” 『書誌學研究』 제42집(2009. 6).
- 宋日基. “古代 동아시아 佛經의 ‘卷首題形式’ 考察, 東아시아出版文化研究.” 仙台: 東北大學 東아시아出版文化研究センター, 2010.

書誌學研究 第47輯(2010. 12)

李丞宰. “湖巖本과 石山寺本 『華嚴經』의 비교 연구.” 『書誌學報』 28(2004. 12).

鄭在永.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研究』 제7집(2001).

千惠鳳. “고려초기 간행의 寶篋印陀羅尼經.” 『圖書館學報』(중앙대 도서관학과) 第2輯(1973).